

#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i-Sook Park\*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cultural empathy, self-esteem, and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157 nursing students who were 2nd, 3rd, and 4th grade in one university located at the Chungbuk provinces. Data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cultural empathy, self-esteem, and cultural competence. The mean score for cultural empathy was  $3.63 \pm .34$  (scores ranged from 1 to 5), The mean score for self-esteem was  $2.91 \pm .42$  (scores ranged from 1 to 4). The mean score for cultural competence was  $3.31 \pm .43$  (scores ranged from 1 to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age ( $t = -2.242, p = .027$ ), grade ( $F = 3.473, p = .033$ ), and fluency of foreign language ( $F = 5.053, p = .007$ ).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cultural empathy ( $r = .49, p < .001$ ), and self-esteem ( $r = .33, p < .001$ ), and self-esteem and cultural empathy ( $r = .33, p < .001$ ). Cultural empathy and self-esteem explained 29.4% of cultural competence and major predictor variable for cultural competence was cultural empathy. In this paper, we propose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 curriculum and extra curriculum that can enhance cultural empathy and self-esteem to improv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specially, continuous education of cultural knowledge among cultural competence will be done.

▶ Keyword: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Empathy, Multiculture, Nursing Student, Self-Esteem

## I. Introduction

### 1. Background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해외 유학생 등의 유입으로 인해 빠르게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2018년 법무연감에 의하면 2017년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180,490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1].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한국에서 치료받는 환자수의 증가를 시사한다[2].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합법화에 따른 정부의 의료관광 사업으로 2016년 약 36만 4천명의 외국인이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환자 수는 2015년 대비 29%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가 약 156만명, 국적은 총 188개국에 이르고 있다[3].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간호대상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이 미래를 대비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4].

문화적 역량이란 주류 문화와 차별되는 소수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5]을 말한다. 특히 문화적 역량은 주류 문화가 아닌 독특한 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이에 보건의료 전문직 종사자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문화적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6].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

\*First Author: Mi-Sook Park, Corresponding Author: Mi-Sook Park

\*Mi-Sook Park (mspark@ut.ac.kr), 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Received: 2019. 04. 01, Revised: 2019. 05. 02, Accepted: 2019. 05. 02.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in 2017

의 가치, 태도,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때 편견과 차별 없이 그들과 원만히 상호작용하고 대상자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문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7, 8].

특히 간호대학생의 66%가 임상실습 중에 외국인 환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9], 문화적 역량은 2.91점~3.2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2][10-12] 보통 수준의 문화적 역량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경험했던 미국 등의 다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8]. 미국간호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13]는 문화적 역량의 5가지 핵심을 설정하였으며, 문화역량 간호모델,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이론 강의와 임상실습에서 요구되는 학습전략, 사례연구와 간호프로그램에 참고가 되는 교과자원 등의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Choi 등[14]은 우리나라 201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분석 연구에서 98개(48.8%)학교가 글로벌 건강 관련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im[15]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문화대상자를 직접 만나지만 임상간호사로부터 다문화 간호의 역할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간호역량을 함양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문화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간호대학생들은 인종,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등에서 벗어나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치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적응하도록 준비해야 한다[16].

국내의 문화적 역량 관련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17],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18], 공감[11], 공감능력[2][19,20], 문화적 공감[21,22], 자아존중감[23], 대인관계[23], 문화간 의사소통능력[23], 문화적 공감[12][19][21], 감성지능[12]등이 보고되었다.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소인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경, 배려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요소인 공감 능력의 속성과 연관되며, 공감 능력은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24]. 특히 문화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내부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25]. Ridley와 Lingle[26]에 의하면 문화적 공감은 문화적 역량 습득과 효과적인 발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문화적 요인들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일 연구[12]는 문화적 공감이 높으면 문화적 역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문화적 역량의 관련 요인 중 자아존중감[23]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27],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우선되어야 한다[28].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시대 국가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29]. 그러나 문화적 역량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 연구는 일부 연구[23]이외에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31]가 이루어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역량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수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2][10], 문화적 역량의 하부 영역 수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 및 문화적 역량의 하부 영역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간호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내에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다문화 대상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2. Purpose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 역량 수준을 조사하고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 수준을 알아본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Methods

### 1. Study design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 수준을 알아보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on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 G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2,3,4학년 총 167명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 20일부터 동년 3월 4일까지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한 담당 교과목 교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결과는 오로지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자의로 연구에 참여하고 언제든지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에 부착된 안내지에 서명을 받았다. 총 16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61부를 회수하였고(응답률 96.4%),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5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다중회귀분석의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6개로 검정하였을 때 143명으로 산출되었다.

**3. Measurements**

**3.1 Cultural empathy**

문화적 공감은 Wang 등[32]이 개발한 SEE(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를 Kim[33]이 한국형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공감적 감정과 표현 15개 문항, 공감적 관점 취하기 7개 문항, 문화적 차이 수용 5개 문항, 공감적 인식 4개 문항으로 총 31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3.2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7]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Jeon[34]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8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 이었다.

**3.3 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역량은 Han[11]이 개발한 문화적 역량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의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 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대상자는 여자 120명(76.4%), 남자 37명(23.6%)이며, 평균 나이는 22.51세로, 22세 이하는 87명(55.4%), 23세 이상은 70명(44.6%)으로 분포하였다. 학년별 인원은 2학년, 3학년이 각각 51명(32.5%), 4학년 55명(35.0%)이었다. 임상실습은 55명(35.0%)이 경험하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38명(24.2%)으로 무교 119명(75.8%)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다문화와 관련 교육에서는 120명(76.4%)이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다문화 학생과 수업 경험은 60명(38.2%)이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8명(68.8%)으로, 1~3회가 84명(53.5%), 4회 이상 24명(15.3%)이었으며,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49명(31.2%)이었다. 해외에서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은 22명(14.0%)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내 또는 교외에서 외국어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8명(81.5%)이었으며, 외국어 말하기 실력은 ‘단어로 말할 수 있다’가 114명(72.6%)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39명(24.8%) 이었고, ‘전혀 외국어를 못 한다’ 4명(2.5%)이었다.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경우는 82명(52.2%)이었다(표 2).

**2. The mean score for Cultural empathy, self-esteem, and cultur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1점부터 5점까지 분포하는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 평균은 3.63±.34점이었으며, 1점부터 4점까지 분포하는 자아존중감 평균은 2.91±.42점이었다. 1점부터 5점까지 분포하는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3.31±.43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의 하부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문화적 인식’ 4.09±.47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문화적 민감성’ 3.85±.54점, 문화적 경험 3.25±.61점, ‘문화적 기술’ 3.18±.63점, ‘문화적 지식’ 2.84±.61점 순이었다(표 1).

Table 1. The Mean Score for Cultural Empathy, Self-Esteem, and Cultural Competence(N=157)

Variable	Categories	M±SD	Min	Max
Cultural Empathy		3.63±.34	2.74	4.55
Self-Esteem		2.91±.42	2.00	3.70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Knowledge	2.84±.61	1.00	4.67
	Cultural Skill	3.18±.63	1.00	5.00
	Cultural Experience	3.25±.61	1.25	4.75
	Cultural Awareness	4.09±.47	2.25	5.00
	Cultural Sensitivity	3.85±.54	2.50	5.00
	Total		3.31±.43	1.93

### 3. Difference in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에서는 나이( $t=-2.242, p=.027$ ), 학년( $F=3.473, p=.033$ ), 외국어 유창성

적 역량( $r=.33, p<.001$ ) 사이에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문화적 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문화적 역량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문화적 공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

Table 2. Difference in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ulture Competenc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Female	120(76.4)	3.30±.42	-.644	.521	
	Male	37(23.6)	3.50±.48			
Age(years)	≤22	87(55.4)	3.24±.37	-2.242	.027	
	≥23	70(44.6)	3.41±.49			
Grade	2nd <sup>a</sup>	51(32.5)	3.32±.41	3.473	.033	c>b
	3rd <sup>b</sup>	51(32.5)	3.19±.35			
	4th <sup>c</sup>	55(35.0)	3.41±.50			
Clinical Practicum	Yes	55(35.0)	3.41±.50	-1.968	.052	
	No	102(65.0)	3.26±.39			
Religion	Yes	38(24.2)	3.36±.52	.761	.450	
	No	119(75.8)	3.29±.40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120(76.4)	3.34±.44	1.504	.135	
	No	37(23.6)	3.22±.40			
Experience of Class with Foreign Students	Yes	60(38.2)	3.32±.42	.252	.801	
	No	97(61.8)	3.30±.44			
Experience of Travel Abroad	Yes	108(68.8)	3.34±.42	1.394	.165	
	No	49(31.2)	3.24±.45			
Times of Travel Abroad	0	49(31.2)	3.24±.45	.981	.377	
	1~3	84(53.5)	3.34±.42			
	≥4	24(15.3)	3.35±.44			
Stayed Abroad for More Than a Month	Yes	22(14.0)	3.27±.46	-.486	.628	
	No	135(86.0)	3.32±.43			
Experience of Other Language Class	Yes	128(81.5)	3.30±.44	-.736	.463	
	No	29(18.5)	3.36±.39			
Fluency of Foreign Language	No speaking <sup>a</sup>	4( 2.5)	2.98±.22	5.053	.007	c>a
	Words <sup>b</sup>	114(72.6)	3.26±.42			
	Usual talking <sup>c</sup>	39(24.8)	3.48±.44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	Yes	82(52.2)	3.34±.44	.893	.373	
	No	75(47.8)	3.28±.43			

( $F=5.053, p=.007$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화적 역량은 23세 이상이 3.41점으로 22세 이하의 3.24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과 외국어 유창성에서 문화적 역량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4학년이 3.41점으로 3학년 3.19점 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았으며, 외국어로 일상적인 대화 가능한 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3.48점으로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의 2.98점 보다 문화적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임상실습경험, 종교,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 경험, 해외여행 경험, 해외여행 횟수,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경험, 교내 또는 교외의 외국어 수업 경험 및 외국인과의 교류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 4. Correlations among cultural empathy, self-esteem, and cultur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적 공감과 자아존중감( $r=.33, p<.001$ ), 문화적 공감과 문화적 역량( $r=.49, p<.001$ ), 자아존중감과 문화

Table 3. Correlations among Cultural Empathy, Self-Esteem and Cultural Competence(N=157)

Variable	Cultural Empathy	Self Esteem	Cultural Competence
	r(p)		
Cultural Empathy	1		
Self-Esteem	.33 (<.001)	1	
Cultural Competence	.49 (<.001)	.33 (<.001)	1

### 5.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나이, 학년, 외국어 유창성은 명목변수이므로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과 함께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문화적 역량은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중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1.919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을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VIF지수는 1.164~8.495로 10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 공감( $p<.001$ )과 자아존중감( $p=.048$ )은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주었다. 문화적 공감이 높을수록( $B=.555$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B=.156$ ) 문화적 역량은 높았으며, 이들 변수가 문화적 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9.4%였고, 문화적 공감( $\beta=.436$ )이 문화적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N=157)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506	.408		1.240	.217
Cultural Empathy	.555	.093	.436	5.999	<.001
Self-Esteem	.156	.078	.152	1.997	.048
$\geq 23$ years	.078	.077	.090	1.020	.309
3rd Grade	.011	.078	.012	.138	.890
4th Grade	.100	.094	.110	1.057	.292
Words Speaking	.250	.187	.259	1.338	.183
Usual Talking	.325	.196	.326	1.662	.099
Adj R <sup>2</sup> =.294, F=10.26( $p<.001$ )					
Durbin Watson's d=1.919					

#### IV. Discussion and Conclusion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세계화에 발맞추어 많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따라 증간된 환자수로 인해 간호학생들도 다문화 대상자와의 만남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공감, 자아존중감,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알아보고,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을 조사하여, 간호학생들이 다문화 대상자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1점부터 5점까지 분포하는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의 평균은 3.63점 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문화적 공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공감을 연구한 Kim[12]의 3.44점 보다 약간 높았고, 다문화 실천가들의 3.68점[33]과는 비슷하였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공감을 측정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심층적인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1점부터 4점까지 분포하는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91점(72.8점/100점 만점)이었으며,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Choi[35]의 3.33점 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동일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5점 만점으로 측정한 Park과 Jung[23]의 3.63점(72.6점/100점 만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높은 자아존중감이 타인을 수용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29]. 이에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5점 만점)의 평균은 3.3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에 대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Choi의 3.27점[10], Kim[12]의 3.28점과 유사하였으며, Han[11]의 3.04점, Cho 등[2]의 2.91점 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하부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문화적 인식'으로 4.09점이었고, 다음으로 '문화적 민감성' 3.85점, '문화적 경험' 3.25점, '문화적 기술' 3.18점, '문화적 지식' 2.84점 순이었으며, 이는 Kim[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Han[11]에 의하면 문화적 인식은 '다른 문화권 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점검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가치, 신념, 생활 방식 및 문제 해결 전략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영역이다. 그러나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기초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으로 다른 문화의 세계관, 언어, 역사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과 같은 문화요소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고, 다른 문화권 대상자의 건강신념, 건강습관, 건강행위 등의 건강과 관련된 문화건강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Caffrey 등[36]이 개발한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Health Scale(CCHCS)'과 Schim 등[37]이 개발한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를 Park[38]이 번역 및 수정·보완한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일 연구[19]에서 문화적 하위척도인 문화적 지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다문화 관련 교과목 개설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고 교과목 내용이 실제적인 문화적 지식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고 간호 대학생이 생각한다는[18]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77.4%가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역량의 하부 영역에서 문화적지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의 지속적인 교육 및 강화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에서는 23세 이상이 22세 이하 보다, 4학년이 3학년 보다 문화적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Kwon 등[22]의 연구에서 1학년 보다 3,4학년이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여, 고학년이 저학년 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im[12]의 연구에서는 1학년이 4학년 보다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으며, Kim과 Shin[2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학년별 문화적 역량이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학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 경험, 교육, 문화 관련 특성, 내적 변인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외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학생이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 보다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다 [4,12,16,19]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문화적 공감과 문화적 역량 간에 유의한 양적 상관성을 보여 Kim[12]의 결과 및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문화적 역량간의 상관성을 보고한 Cho 등[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문화를 공감하는 능력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아울러 이러한 능력이 다른 문화와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2].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역량사이에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이는 Park과 Jung[2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타 문화 및 인종에 대해 관용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39].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 및 인종에 대한 관용 수준이 높아져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이 없을 것이라 볼 수 있다[29].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공감사이에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Lee와 Lee의 연구[30]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공감과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화적 공감으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9.4%이었다. Kim[12]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문화적 공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Kim과 Jung[2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8.2%였으며,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순으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Kim과 Lee의 연구[31]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보통 수준이며, 문화적 역량의 하부영역에서 문화적 인식 수준은 높은 반면 문화적 지식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은 문화적 공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공감이었다.

이에 간호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

화적 공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문화적 역량의 하부 영역에서 다문화 대상자들에 대한 문화적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일반화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The Ministry of Justice of 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eigner stayed in republic of Korea; 2017[cited 2019 April 28]. Available from <http://search-home.moj.go.kr/>
- [2] M. K. Cho, I. N. Shin, Y. J. Lee, J. H. Lee, E. H. Yang, H. R. Jeong, and K. M. Cha, "University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y," *Perspective in Nursing Science*, Vol. 12, No. 2, pp.106-114, October, 2015.
- [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7, April). Health and Welfare Trends foreign patients in 2016.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4] N. Y. Lee, Y. S. Eo, J. and J. W. Le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CC)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CC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1, pp.16-27, February, 2015.
- [5] J. R. Betancourt, A. R. Green, J. E. Carrillo, and O. Ananeh-Fierempong, "Defining Cultural Competence: A Practical Framework for Addressing Racial/Ethnic Disparities in Health and Health Care," *Public Health Reports*, Vol. 118, No.4, pp. 293-302, July-August, 2003.
- [6] J. Capell, G. Veenstra, and E. Dean,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 Care: 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ruct, It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and Testing*, Vol. 11, No. 1, pp.30-36, January, 2007.
- [7] J. N. Giger, and R. E. Davidhizar, "*Transcultural nursing*," 5th ed. Lee KH, Kim KS, Kim JH, Kim YH, Park HS, Jung KH et al. Seoul: Elsevier Korea; 2011.
- [8] S. O. Yang, M. S. Kwon, and S. H. Lee,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visiting nurs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286-295, September, 2012.
- [9] J. H. Kim,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7, pp.305-314, July, 2014.
- [10] S. H. Choi,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B), pp.3379-3390, December, 2017.

- [11] S. Y. Han,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ter's thesis, 2014.
- [12] J.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ultural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 [13]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2008. August). Tool kit resources for cultural competent education for baccalaureate nurses. retrieved April 28, 2019, from <http://www.aacnnursing.org/Education-Resources/Tool-Kits/Cultural-Competency-in-Nursing-Education>
- [14] K. S. Choi, H. S. Kim, S. Y. Lee, A. Dressel, L. W. Galvao, and M. H. Jun,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global health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220-227, May, 2016.
- [15] S. H. Kim,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580-593, November, 2013.
- [16] D. H. Kim, and S. E. Kim,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2, No. 3, pp.159-168, September, 2013
- [17] M. A. Kim, and S. E. Choi, "A Literature of the studies on cultural competen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9, No.4, pp.450-466, December, 2018.
- [18] S. 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334-345, July, 2014.
- [19] S. Y. Yang, H. N. Lim, and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9, No. 2, pp.183-193, May, 2013.
- [20] Y. S. Ba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1, No. 1, pp.52-60, May, 2015.
- [21] M. S. Kim, and D. S. Shin,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6, pp.3437-3450, December, 2016.
- [22] S. H. Kwon, H. K. Son, A. R. Han, Y. J. Kim, and G. H. Choi,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9, No. 2, pp.1069-1081, April, 2017.
- [23] D. Y. Park, and K. H. Jung,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337-346, November, 2014.
- [24] C. L. Jeffrey, "Empathy and competence,"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 188, No. 7, pp.414-416, April, 2008.
- [25] A. E. Ivey, M. B. Ivey, and L. Simek-Morgan, "*The empathic attitude: Individual, family and culture*," In A. Ivey, M. Ivey, & L. Simek-Morgan(Ed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2nd ed.), pp.21-44, February, 1993.
- [26] C. R. Ridley, and D. W. Lingle, "*Cultural empathy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 multidimensional process model*."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4th ed.), pp.21-46, December, 1995.
- [27]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Vol.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 [28] J. A. Banks,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New Jersey: Allyn & Bacon, Inc., 1984.
- [29] J. Y.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 [30] J. A. Lee, and Y. J. Le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empathic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 16, No. 6, pp.73-91, Jun, 2016.
- [31] H. J. Kim, and T. S. Lee, "The effects of students' self-esteem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elementary school lev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2, pp.479-498, February, 2015.
- [32] Y. W. M. Wang, M. M. Davison, O. F. Yakushko, H. B. Savoy, J. A. Tan, and J. K. Bleier,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No. 2, pp.221-234, April, 2003.
- [33] J. Y. Kim,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Doctoral

-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3.
- [34]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Institute, Vol. 11, No. 1, pp.107-130, 1974.
- [35] E. J. Choi,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8.
- [36] R. A. Caffrey, W. Neander, D. Markle, and B. Stewart,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4, No. 5, pp.234-240, May, 2005.
- [37] S. M. Schim, A. Z. Doorenbos, J. Miller, and R. Benkert,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 11, No. 1, pp.29-40, March, 2003.
- [38] J. S. Park,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Daegu, 2011.
- [39] M. J. Bennet.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D. Landis. M. Bennett, & J. Bennett,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Thousands Oaks, CA:Sage. pp.166-184. 2004.

## Authors



Mi-Sook Park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1983, 1992, and 2001, respectively. Dr. Park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in 199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She is interested in nursing education, geriatric nursing, and bullying of nursing students.